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와 해결방안

Single Status of Young Men in Farming Area in Gyeong-buk Region and Solution

김한곤*, 박세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Han-Gon Kim(hgkim@ynu.ac.kr)*, Se-Jeong Park(sezzi721@ync.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전국과 경북지역의 미혼남녀 성비차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시·군·동·읍면별 비율 등을 살펴보고, 둘째,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봄, 셋째,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결혼문제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재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농촌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 농촌총각에 대한 미혼여성의 결혼기피, 이성교제의 어려움 등은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촌총각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북지역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촌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수반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농촌 | 총각 | 미혼 |

Abstract

What this research aims are as follows. First, it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gender ratio of single men and women in the entire nation and Gyeongbuk area, and also the ratio of single men in marriageable age in Gyeongbuk area by si, gun, dong, eub, and myeon, Second, the social-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single men in marriageable age in Gyeongbuk area, and third, the causes of problems related to marriage for single men and the solution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imbalance of current gender ratio in farming area, farm villages falling behind socially and economically, young women evading marriage with young men in farming area, and difficulty of making a girlfriend, all served as the factors that made it difficult for single men to get married.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se factors by individual efforts made by single men in farming area. Therefore, these problems would be resolved by taking such measures as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in farming area in Gyeongbuk area, enhancement of status of women in farming area, and enhancement of awareness for men in farming area.

■ keyword : | Farming Area | Single Men | Single |

I.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

계·문화적 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이농과 농업의 경
시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결혼적
령기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배우자를 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접수일자 : 2013년 08월 28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20일

교신저자 : 박세정, e-mail : sezzi721@ync.ac.kr

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에 80년대 이후 농촌총각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즉,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남성들이 낮은 경제적 수준과 열악한 문화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2]. 하지만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마저도 실적 부진 및 각종 부작용으로 차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3][4].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현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 중인 시·군은 6개 시·군에 불과하며, 올해 시·군별 실적은 봉화군 10명(1인당 지원액 600만원), 울진군 5명(1인당 지원액 600만원), 영덕군 16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영양군 5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청도군 4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청송군 2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등이다. 농촌 총각 42명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제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인권 침해·불법 중개 행위 및 다문화가정의 불화로 인해 살인과 자살 등 극단적인 사건·사고, 가정 폭력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5].

2010년 경북지역의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은 전체 남성의 65.5%를 차지하는데 반해 같은 연령의 미혼여성은 4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지역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함께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 미루어볼 때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은 경북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문제이자,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6]. 오늘날 혼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농촌총각들이 혼인을 하기위해 부득이하게 이농하여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는 농촌사회가 고령사회가 되는 데

한 몫을 하였다[7]. 또한 이러한 농촌총각들의 이농은 농촌사회의 영농후계세대 확보를 어렵게 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8][9]. 이와 같은 농촌 총각 혼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9]. 이에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6]. 과거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임산물의 생산 등 재화 생산영역에 초점을 둔 전통적 개념의 농촌은 최근 들어 관광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촌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요한 관광목적지로 점차 크게 부상하고 있다[10].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대한 논의는 농업과 농촌이 제 기능을 하고, 농촌사회가 유지·발전하는데 기초적이며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근원적인 농촌총각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농촌의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머물러 매우 제한적이었고, 1990년대 연구[8][9]들조차 1980년대 연구[1][11]를 그대로 반복한 문헌고찰연구였다. [6]의 연구에서 성별불균형과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다루었고 이론적 논점이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보다 정확한 농촌미혼남성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농촌의 혼인관련 통계 및 지역별 인구분석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연구[12]는 2005년도 인구자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2010년 인구자료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실태나 해결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TV나 신문기사를 통해 사기결혼, 농촌총각 결혼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사례들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6]. 또한, 농촌총각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국제결혼과 결부되어 이루어진 연구[13-16]가 대부분이며 이 또한 당사자인 남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주여성보다 간과되어 왔다[12]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의 2%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이는 더 정확한 농촌미혼남성의 문제 진단과 실태파악을 위해 농촌청년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통한 인구추이를 분석해야 하며 사회적 구조 속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의 성비차의 비교분석은 그저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과 같은 단편적인 연결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전국과 경북지역의 미혼남녀 성비차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시·군, 동·읍면별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총각의 인구추이를 분석하고,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징(가구주, 교육, 경제활동상태, 종사자의 지위)을 통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농촌의 경제 및 사회적 구조에서 파악함으로써,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결혼문제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1)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인구학적 추이에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 1-1)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연령별 미혼 인구비율은 어떠한가?
 - 1-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성별 미혼 인구비율은 어떠한가?
- 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사회경제적 특징에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 2-1)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2-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교육수준은 어떠한가?
 - 2-3)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떠한가?

II.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

1. 전국과 경북지역의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

전국의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2].

표 1.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1995~2010):전국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18세 미만	99.9	99.8	100.0	100.0
18-24세	96.0	97.2	98.4	98.9
25-29세	62.6	69.9	81.3	85.2
30-34세	18.6	27.1	40.9	49.8
남				
35-39세	6.1	10.2	18.1	26.9
40-44세	2.6	4.5	8.8	14.8
45-49세	1.2	2.2	4.6	8.2
50-54세	0.7	1.0	2.6	4.6
55세 이상	0.3	0.5	0.7	1.2
전국				
18세 미만	99.8	99.8	99.9	100.0
18-24세	85.8	91.5	94.8	95.6
25-29세	28.5	39.4	58.1	67.8
30-34세	6.2	10.2	18.3	28.5
여				
35-39세	3.1	4.3	7.3	12.4
40-44세	1.8	2.5	3.5	5.9
45-49세	1.1	1.6	2.3	3.3
50-54세	0.6	1.0	1.7	2.3
55세 이상	0.3	0.5	0.6	1.0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2010년, 연령군별 미혼남성의 비율을 보면 25~29세 85.2%, 30~34세 49.8%, 35~39세 26.9%, 40~44세 14.8%, 45~49세 8.2%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군별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67.8%, 30~34세 28.5%, 35~39세 12.4%, 40~44세 5.9%, 45~49세 3.3%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나 남성의 경우 30~34세와 35~39세의 미혼남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 25~29세와 30~34세의 미혼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에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점차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의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0년 연령군별 미혼남성의비율은 25~29세 83.2%, 30~34세 48.7%, 35~39세 29.2%, 40~44세 16.6%, 45~49세 8.3%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군별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60.4%, 30~34세 23.1%, 35~39세 9.8%, 40~44세 4.8%, 45~49세 2.9%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전국의 미혼여성 비율에 비하여 미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비율이 전국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 읍면부의 경우, 2010년 미혼남성의 비율은 25~29세 85.8%, 30~34세 52.6%, 35~39세 35.5%, 40~44세 21.1%, 45~49세 10.9%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57.1%, 30~34세 22.1%, 35~39세 10.3%, 40~44세 5.0%, 45~49세 3.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혼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북지역 전체와 비교해 보면, 35세 이상의 미혼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혼남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결혼을 하는데 있어 농촌지역 총각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향후 결혼적령기의 농촌지역 남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북지역에서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은 신부감 부족으로 이어져,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촌지역 총각들의 결혼성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남녀의 비율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경북지역의 미혼남성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성과의 만남 또는 결혼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혼으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상태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가 증대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혼인구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미혼 또는 출생시 성비 불균형, 여성의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북지역 미혼남성의 경우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

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인구비율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남성의 시·군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가운데 군지역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시지역에서는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안동시, 김천시, 포항시, 구미시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 2.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1999~2010):경북읍면부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남	18세 미만	99.9	100.0	100.0	100.0	
	18-24세	95.6	96.8	98.1	99.2	
	25-29세	58.3	64.3	79.6	83.2	
	30-34세	15.6	23.4	38.3	48.7	
	35-39세	7.1	9.3	17.8	29.2	
	40-44세	2.9	4.0	8.2	16.6	
	45-49세	1.0	2.0	4.5	8.3	
	50-54세	1.2	1.3	2.8	5.8	
	55세 이상	0.1	0.2	0.6	1.0	
	경북(전체)	99.8	99.8	99.9	100.0	
여	18-24세	83.1	88.7	92.2	91.7	
	25-29세	20.4	29.3	47.5	60.4	
	30-34세	4.0	6.1	11.7	23.1	
	35-39세	2.1	4.1	5.3	9.8	
	40-44세	1.7	2.6	3.8	4.8	
	45-49세	0.9	1.5	1.9	2.9	
	50-54세	0.2	0.9	1.7	2.1	
	55세 이상	0.2	0.3	0.4	0.5	
	남	18세 미만	99.8	100.0	100.0	100.0
		18-24세	95.5	97.0	98.3	99.3
25-29세		65.2	70.3	80.0	85.8	
30-34세		20.4	29.2	43.8	52.6	
35-39세		9.8	12.1	21.1	35.5	
40-44세		4.0	5.9	10.8	21.1	
45-49세		1.4	2.9	6.0	10.9	
50-54세		1.1	1.9	3.9	7.1	
55세 이상		0.1	0.2	0.7	0.9	
경북(읍면부)		99.7	99.6	100.0	100.0	
여	18-24세	84.0	87.5	90.6	87.0	
	25-29세	20.4	27.6	43.3	57.1	
	30-34세	3.0	5.8	10.0	22.1	
	35-39세	1.8	4.4	5.9	10.3	
	40-44세	1.7	2.5	4.3	5.0	
	45-49세	0.4	1.7	2.0	3.7	
	50-54세	0.1	0.9	1.5	2.1	
	55세 이상	0.2	0.2	0.4	0.4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나타났고, 군지역에서는 영양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청도군, 청송군, 군위군·고령군, 영덕군, 칠곡군, 울릉군, 울진군, 성주군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시·군별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율은 시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봉화군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군, 상주시, 영천시, 청도군 등의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인구비율(1995~2010):사군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포항시	33.4	37.8	56.0	63.5
경주시	37.7	49.6	62.6	71.3
김천시	36.3	41.9	48.7	69.3
안동시	36.5	48.6	58.4	68.9
구미시	27.8	32.5	55.4	58.3
영주시	36.6	42.7	60.0	70.8
영천시	39.6	51.4	63.8	76.0
상주시	51.5	50.4	57.1	76.1
문경시	38.0	55.0	53.8	73.6
경산시	37.5	40.7	56.7	66.0
군위군	38.6	48.9	69.4	71.6
의성군	47.2	42.9	65.1	66.7
청송군	40.9	45.2	53.1	54.8
영양군	48.1	48.1	76.5	59.1
영덕군	38.1	60.4	74.2	70.3
청도군	41.5	48.6	55.6	74.5
고령군	38.6	32.9	62.2	84.1
성주군	28.8	47.8	56.8	66.7
칠곡군	37.8	45.0	49.3	53.2
예천군	45.3	73.5	56.6	70.7
봉화군	45.1	48.8	48.4	85.7
울진군	29.5	42.3	57.3	57.1
울릉군	35.3	32.1	66.7	35.3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남성의 동·읍면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전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가운데 동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2005년에 증가한 후 2010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읍면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2000년에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 감소한 후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읍면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하여 2.8%p나 증가하였다.

표 4.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 남성의 인구비율(1995~2010):동읍면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동부	49.2	47.9	54.1	51.3
읍면부	50.8	52.1	45.9	48.7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III.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사회경제적 특징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일 경우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여성의 결혼결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의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가구주와의 관계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5]에서 살펴보았다.

표 5.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남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가구주	27.8	26.5	29.9	33.0
	자녀	58.5	59.6	54.5	56.6
	손자녀	0.4	0.7	0.8	1.7
	형제자매	5.2	4.9	4.1	2.7
	형제자매의 자녀	0.5	0.2	-	0.2
	기타 친인척	1.2	1.0	0.9	0.8
기타 동거인	6.4	7.1	9.8	5.0	
경북지역 읍면부	가구주	19.3	20.7	23.1	26.5
	자녀	69.0	66.4	64.0	63.6
	손자녀	0.4	0.6	1.2	2.6
	형제자매	4.0	4.1	3.9	1.6
	형제자매의 자녀	0.3	0.6	-	0.1
	기타 친인척	0.5	0.3	0.9	1.0
기타 동거인	5.2	7.3	6.9	4.7	

*2005년의 경우 '손자녀'에 '중손자녀' 포함. '형제자매의 자녀' 제외.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33.0%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56.6%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구주라고 보았을 때,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가구주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1인가족화현상 및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중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징은 농촌총각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26.5%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63.6%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북지역 가운데서도 농촌총각의 경우 가구주인 비율의 증가와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의 감소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농촌총각에게서 1인 가족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6]에서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60.8%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

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30.3%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72.2%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19.1%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구주의 증가폭에 있어 미혼여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교육수준

[표 7]에서와 같이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미혼남성들이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70.3%, 고등학교 과정 24.8%, 대학원 과정 2.5%, 중학교 과정 1.5%, 초등학교 과정 0.6%, 무학 0.3%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특히, 1995년에 비해 대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66.9%, 고등학교 과정 27.2%, 대학원 과정 2.3%, 중학교 과정 1.9%, 초등학교 과정 1.2%, 무학 0.5%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경북지역 전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총각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점차 교육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총각의 향상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등이 농촌총각의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가구주	23.6	20.3	25.0	30.3
	자녀	60.1	64.5	62.1	60.8
	손자녀	0.2	0.2	1.0	1.7
	형제자매	6.8	6.7	4.5	3.0
	형제자매의 자녀	0.4	0.4	-	0.3
	기타 친인척	0.8	0.6	1.1	0.5
	기타 동거인	8.0	7.2	6.3	3.4
경북지역 읍면부	가구주	10.2	10.1	14.7	19.1
	자녀	75.7	77.5	73.5	72.2
	손자녀	-	-	1.5	1.9
	형제자매	5.6	4.9	4.4	1.9
	형제자매의 자녀	-	0.4	-	0.6
	기타 친인척	1.7	0.7	1.2	0.8
	기타 동거인	6.8	6.4	4.7	3.5

* 2005년의 경우 '손자녀'에 '증손자녀' 포함. '형제자매의 자녀' 제외.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표 7.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남성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무학	1.0	0.2	0.3	0.3
	초등학교	4.0	1.4	0.5	0.6
	중학교	9.9	5.3	2.4	1.5
	고등학교	48.0	43.6	34.0	24.8
	대학교(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35.8	47.9	60.3	70.3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1.2	1.6	2.6	2.5
경북지역 읍면부	무학	1.6	0.2	0.6	0.5
	초등학교	5.3	1.8	0.8	1.2
	중학교	13.1	6.6	2.9	1.9
	고등학교	51.4	48.3	38.8	27.2
	대학교(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27.8	41.6	54.9	66.9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0.8	1.4	2.1	2.3

* 각각의 교육정도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지역 25~34세 결혼 적령기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혼남성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혼여성들이 미혼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미혼여성의 비율이 미혼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69.9%, 고등학교 과정 25.0%, 대학원 과정 3.6%, 중학교 과정 0.9%, 초등학교 과정 0.4%, 무학 0.2%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으며,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71.6%, 고등학교 과정 23.2%, 대학원 과정 3.1%, 중학교 과정 1.2%, 초등학교 과정 0.8%, 무학 0.2%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즉,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은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낮은 교육수준은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여성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무학	0.6	0.7	0.5	0.2
	초등학교	2.1	1.0	0.5	0.4
	중학교	4.9	2.3	2.0	0.9
	고등학교	50.4	36.8	30.7	25.0
	대학교(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39.8	57.0	62.2	69.9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2.1	2.2	4.0	3.6
경북지역 읍면부	무학	1.7	1.5	1.2	0.2
	초등학교	5.1	1.9	0.9	0.8
	중학교	5.1	2.6	2.6	1.2
	고등학교	54.2	40.1	29.1	23.2
	대학교(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32.2	52.0	63.2	71.6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1.7	1.9	2.9	3.1

* 각각의 교육정도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3.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경제활동상태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표 9]와 같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취업상태의 미혼남성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지역 전체 미혼남성의 취업률에 비해 경북지역 읍면부 미혼남성의 취업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73.2%인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75.8%로 상대적으로 경북지역 전체 미혼남성의 취업률보다 읍면부 미혼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총각이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보다 결혼을 성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배우자의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연관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9.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남성의 경제활동 상태-취업여부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취업	76.8	72.3	70.9	73.2
	미취업	23.2	27.7	29.1	26.8
경북지역 읍면부	취업	77.2	76.5	73.0	75.8
	미취업	22.8	23.5	27.0	24.2

* 취업에는 '일하고 있는 상태'와 '일시휴직상태'를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반면에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미혼남성과는 달리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북지역 읍면부 미혼여성의 취업률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역 읍면부 미혼여성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경북지역 전체 미혼여성의 취업률과 대등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아도 더 이상 낮은 취업률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혼여성들의 높아진 경제력은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을 찾게 하고, 상대적으로 결혼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촌총각들은 더욱 더 결혼상대자의 조건에서 멀어지게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0.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취업여부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취업	64.8	68.9	68.9	76.6
	미취업	35.2	31.1	31.1	23.4
경북지역 읍면부	취업	58.2	65.9	68.8	76.8
	미취업	41.8	34.1	31.2	23.2

* 취업에는 '일하고 있는 상태'와 '일시휴직상태'를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직업적 성격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1.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3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 임업, 어업'이 17.1%를 차지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종사자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북지역 전체에 비해 약 2배 정도

표 11.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산업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농업, 임업, 어업	15.9	11.7	10.3	8.9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35.1	36.7	42.9	37.4	
	건설업	10.5	7.9	8.7	7.0	
	도매 및 소매업	13.7	11.6	8.7	11.9	
	숙박 및 음식점업	2.8	3.9	4.1	5.5	
	운수 및 통신업	6.1	6.0	4.8	4.9	
	금융 및 보험업	2.9	2.9	2.2	2.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7	4.0	4.8	6.1	
	공공행정	4.3	4.3	2.6	4.9	
	교육서비스업	3.6	2.8	3.1	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	1.5	1.4	2.0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0	6.6	6.3	5.4	
	분류불능	-	0.1	-	-	
	경북지역 읍면부	농업, 임업, 어업	22.1	15.2	20.8	17.1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32.0	35.7	35.6	33.0
		건설업	8.9	7.5	10.2	7.8
도매 및 소매업		10.7	11.0	8.1	9.4	
숙박 및 음식점업		2.4	4.6	3.7	4.5	
운수 및 통신업		6.8	5.6	2.9	4.8	
금융 및 보험업		2.4	2.3	2.6	1.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9	3.2	3.7	4.7	
공공행정		7.3	4.1	3.1	6.4	
교육서비스업		2.7	3.1	2.7	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1.5	1.4	2.1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6	6.4	5.3	6.0	
분류불능		-	0.1	-	-	

*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과 '국제및외국기관'을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산업화로 인하여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북지역 읍면부의 산업적 성격은 '농업, 임업, 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총각이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취업자의 약 17%가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직업적 성격은 위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이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17.9%를 차지하였

다. 또한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북지역 전체와 마찬가지로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이 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15.0%를 차지하였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남성에 비하여 좀 더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성격의 차이는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농촌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노동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농촌생활은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산업적 특성과 거리가 멀었던 직업을 가졌던 여성에게 육체

표 12.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산업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농업, 임업, 어업	3.6	1.6	2.0	2.9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6.6	14.1	18.0	17.9
	건설업	1.9	3.5	5.1	2.6
	도매 및 소매업	12.9	17.3	11.8	11.2
	숙박 및 음식점업	12.7	9.5	6.8	5.0
	운수 및 통신업	1.8	2.0	1.9	2.7
	금융 및 보험업	4.9	5.4	4.5	3.3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0	3.9	4.8	7.0
	공공행정	7.3	3.7	6.1	5.0
	교육서비스업	20.5	20.4	22.5	2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9	12.6	11.0	15.3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9	6.0	4.8	5.8
	분류불능	-	-	0.6	0.2
	경북지역 읍면부	농업, 임업, 어업	8.8	4.5	5.1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2.3	16.5	11.5	15.0
건설업		2.6	4.6	7.3	3.6
도매 및 소매업		11.4	15.3	8.5	10.1
숙박 및 음식점업		7.0	6.8	6.8	4.4
운수 및 통신업		2.6	1.2	0.8	2.6
금융 및 보험업		7.1	6.8	5.6	5.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6	2.3	6.9	6.7
공공행정		12.3	4.5	9.8	5.2
교육서비스업		17.5	22.2	22.6	2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0	9.6	10.7	14.2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8	5.7	4.3	6.2
분류불능		-	-	-	0.3

*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 과 '국제및외국기관' 을 포함.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어주게 되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5.7%,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2.3%, 무급 가족 종사자가 7.6%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77.7%,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7.2%,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1.6%, 무급 가족 종사자가 13.5%로 나타났다.

특정적인 것은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의 경우 1995년에는 12.2%, 2000년에는 10.1%, 2005년에는 19.4%로 다른 지역 미혼남성의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본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북지역 읍면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총각은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반면에, 산업적 특성이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결혼적령기가 넘어서도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표 13.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	74.3	79.6	81.9	8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9.6	7.5	6.1	5.7
	고용원을 둔 사업주	2.9	2.1	1.4	2.3
	무급 가족 종사자	13.2	10.8	10.5	7.6
경북지역 읍면부	임금 근로자	65.5	70.3	71.0	77.7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8.5	15.3	7.8	7.2
	고용원을 둔 사업주	3.8	4.4	1.8	1.6
	무급 가족 종사자	12.2	10.1	19.4	13.5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종사상지

위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8.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4.5%,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2.4%, 무급 가족 종사자가 4.3%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6.2%,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2.1%, 무급 가족 종사자가 7.8%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앞에서 살펴본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종사상지위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경북지역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요인은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종사상지위에 있어 농촌총각보다 우위에 있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농촌총각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불안은 미혼여성에게 있어 배우자로서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농촌총각의 종사상지위는 상대적으로 결혼성립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표 14.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	84.3	90.7	89.6	88.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9	4.7	5.4	4.5
	고용원을 둔 사업주	3.3	1.2	1.4	2.4
	무급 가족 종사자	5.4	3.3	3.6	4.3
경북지역 읍면부	임금 근로자	81.6	91.5	84.6	8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1	1.7	6.4	6.2
	고용원을 둔 사업주	0.9	0.6	1.7	2.1
	무급 가족 종사자	11.4	6.3	7.3	7.8

*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17]

이상의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과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이 여타의 산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결혼결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여성에게 있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력은 더욱 낮은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은 경제적 수입 및 장래성에 영향을 주어, 비자발적인 미혼남성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1. 경북지역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원인

1) 성비 불균형

현재 경북지역에서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비율을 보면, 미혼남성은 65.5%를 차지하고, 같은 연령의 미혼여성은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남녀간에 24.3%p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출생시 성비 불균형에서 기인되기 보다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농현상이 더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공업화는 농촌의 노동력을 도시로 대량 유출시켰다. 이러한 농촌의 노동력 유출은 특히, 청장년층 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다. 농촌지역의 청장년층 인구감소는 농업경제를 약화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미혼여성의 도시로의 진출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도시로의 젊은층 인구가동이 잦았으며,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이농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현재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남성에게 있어 결혼상대자의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결혼적령기 남성들의 정상적인 혼인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신부부족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곧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농촌의 사회경제 문화적 낙후

(1) 농촌지역의 지위 저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 상태에 있어 도시의 성장수준과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있어 농촌지역의 소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소득수준은 낮아지고, 사회적 지위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농촌총각 대부분의 교육수준은 도시지역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이후의 경제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배우자의 조건에서 경제력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농촌총각의 경우 취업률은 도시의 미혼남성에 못지않지만 직업의 성격에 있어서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종사상의 지위 또한 무급 가족 종사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 결혼적령기 여성에게 호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복지 등 농촌생활전반에 걸쳐 도시에 비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수준이 낮은 편에 있어 이 또한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데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적인 서비스·문화시설에 대한 낙후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충족마저 어려운 경우가 농촌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농촌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생활을 위해 이농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의 경제 및 생활전반에 걸친 낙후는 농촌의 발전을 더욱 더 저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2)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의 결혼기피는 농촌의 경제·문화적 낙후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11]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총각과의 결혼기피 이유로 '농가 주부는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노동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서', '장래성이 없어서', '여성 및 부모의 사고방식', '문화적인 혜택이 적어서', '농사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여', '매스컴의 도시위주의 홍보' 등을 이유로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농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과중한 노동력의 요구, 사고방식의 차이, 농촌지역 삶의 질에 대한 불신 등은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농촌총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도시의 미혼여성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전통적인 특성이 더 많이 잔존해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적 사고 및 생활습관에 익숙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으로 시집가는 경우 도시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 비해 시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미혼여성만이 아니라 농촌의 미혼여성 역시, 도시생활을 동경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언젠가는 농촌의 생활에서 벗어나 도시의 생활을 누리보고자 한다. 이러한 탈출구가 바로 도시로의 취업 또는 도시로의 결혼인 것이다. 여성의 농촌생활에 대한 기피는 결국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 농촌총각의 이성교제의 어려움

농촌총각의 경우 이성교제에 있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교제 대상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하여 이성교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는 농촌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전통적 사고방식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입소문'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의 특성상 가족 단위의 노동이 잦아 만남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유로운 이성교제보다는 소개, 주선 등에 의한 만남이 보편화되어 있다.

여기에 미혼여성들의 농촌총각에 대한 편견도 농촌총각의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기인할 것이다. '농촌총각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도시의 미혼남성

에 비하여 떨어질 것이다', '농촌총각은 도시의 미혼남성에 비하여 세련되지 못할 것이다' 등과 같은 농촌총각에 대한 편견은 농촌총각의 자유로운 이성교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교제 대상의 부족과 자유로운 이성교제의 어려움 등은 농촌총각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농촌총각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찾으려하여도 결혼정보회사의 대부분은 농촌총각을 외면하고 있으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추진 또한 오히려 농촌총각에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안기는 등 농촌총각 스스로가 결혼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 경북지역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해결방안

1)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촌은 도시에 비해 미혼남성의 비율이 높고, 미혼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총각이 결혼할만한 농촌의 미혼여성은 우선, 인구규모 자체가 적고, 또한 성비에서도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농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농촌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농촌지역의 사회 및 경제발전을 통하여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저해하는 지역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은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져 지속적으로 농촌사회가 유지·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농촌지역의 사회적 지위향상

농촌과 도시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농촌지역 남성의 지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중요한 개선점이지만 이는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농촌의 성장은 자연스레 농촌지역 남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자연 및 문화와 지역 내 환경을 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촌관광이 대두 되었는데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농가소득확보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5~10년에 걸쳐 점차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18].

하지만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실제 여성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농촌지역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과중한 노동력의 요구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고방식 등은 미혼여성과 그 부모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도시로의 결혼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은 '권위' 여성은 '순정'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지위는 크게 축소되고 여성의 경제력과 권위가 신장됨에 따라 남성상에도 변화가 보아야 한다[4].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면 농촌남성의 아내, 농가의 며느리로써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총각에게 이성교제 및 결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반면에 미혼여성들에게는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의 긍정적 사례와 농촌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각처에서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기존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농촌총각의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여타의 결혼추진활동이 없어도 이성교제 및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결혼적령기의 농촌지역 미혼남성들은 미혼여성들로부터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정부에서 시행한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정책은 국제결혼추진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총각들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더 이상 농촌총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에 대한 우리사회의 외면은 농촌의 미혼남성들이 단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결혼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이농현상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저발전율 초래하게 된다. 결국 농촌총각의 결혼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현재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농촌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 농촌총각에 대한 미혼여성의 결혼기피, 이성교제의 어려움 등은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촌총각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북지역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촌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수반될 때 해소될 것이다.

끝으로, 인구자료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안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농촌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체계 분석과 농촌총각의 개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질적인 연구의 보완을 향후 연구에 제안으로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강경하, *농촌미혼여성의 결혼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2]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 [3] 윤순덕, “2000년도 시험연구사업 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2000.
- [4] 서울신문, 2011. 11. 4일자.
- [5] 이지훈,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 열린전북, 7월호, pp.166-169, 2005.
- [6] 이정화, 박공주,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현실과 대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pp.217-222, 2003.
- [7] 이영대, “농촌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청년 결혼문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1권, 제1호, pp.49-56, 2005.
- [8] 최민호, 김성수, 서규선,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농학연구, 제10권, 제1호, pp.79-89, 1985.
- [9] 최민호, 김성수, 안상근, “농촌청년의 결혼문제의 발생배경과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제15권, 제1호, pp.63-73, 1986.
- [10] 최승국, 임범중, “농촌관광 목적지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권, 제1호, pp.94-108, 2004.
- [11] 심증욱, “한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명지논단, pp.127-141, 1988.
- [12] 정현숙, 양순미,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7-29, 2009.
- [13] 양순미,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한국농촌사회학회, 제16권, 제2호, pp.151-179, 2006.
- [14]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달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159, 2006.
- [15]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울아카데미, p.321, 2004.

- [16] 임형백,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제2호, p.471, 2007.
- [17]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자료, 1995, 2000, 2005, 2010.
- [18] 이화정,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유형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62-69, 2013.

저 자 소 개

김 한 곤(Han-Gon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2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85년 12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저출산, 인구고령화, 다문화, 보건사회학분야

박 세 정(Se-Jeong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이상 및 복지전공(문학석사)
- 2008년 2월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사회문제, 보육